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시편 18:1)



1973년 2월 11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 원 교 회

(27) 9937 • 9738

++++++
신 년 사
++++++

태양이 있는 곳에 밤은 없다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1973년의 새해가 돌았습니다.

어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동녘의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어둠은 소리 없이 그 자취를 감추고 희망과 행복의 찬란한 새 날은 탄생하는 법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깊은 암흑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인생에게 영혼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실패의 밤이 없고 절망은 없으며 공포의 어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운 사람에게서는 근심을 모르는 평안이 있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위를 가지며 또 온 천하가 존경하는 명예를 소유하고 영육간에 모자람을 모르는 풍요함이 있으므로 하늘나라의 참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이생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절대적 복을 받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복의 근원이, 잘 사는 비법이, 오로지 주님의



품에 안기움에 있다
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분께서 우
리를 그의 품에 고
이 안아주시겠습니
까?

첫째 자신을 부인
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무엇이 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버리며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을 깨끗이 내어버리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둘째 십자가를 저야 합니다.

십자가란 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며 유익은 남에게 주기 위하여 억울함을 참고 통분을 삼키며 수모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수행함에 맘을 홀리고 피를 쏟는 끝없는 전진, 노력, 희생의 상징입니다.

세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는 열심이 뛰어나면 뛰어나수록 주님을 괴롭히고 성령을 탄식케 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동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음 시고 아버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내 영과 육체를 드려 실천함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1973년 새해를 맞은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품안에 깊이 안겨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들 각 개인이 참 잘 살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교회에 축복이 넘치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잘 사는 본을 보여주는 빛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 교 □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성경/히 11:4-10

백 성 통 목사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물건, 새 사람, 새 학문, 새 역사 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것이라고 항상 어디에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자식이 아무리 새 것을 좋아하여도 새 엄마 새 아빠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옛 성도들의 믿음을 버리고 새 신을 취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자세입니다. 이런 뜻에서 옛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준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4절).

신자생활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예배의 질서입니다. 예배 하나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 구실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각 가정은 가정예배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예배에 정성껏 참여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는 말씀에서 아벨이 보여준 예배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곧 제사를 드리다 형에게 매를 맞아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시간, 물질, 몸, 정성을 다 기울인다면 적어도 예배시간에 늦거나, 설교시간에 졸거나, 옆 사람과 얘기한다든가 예배중 퇴장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5절).

한 마디로, 에녹의 생활은 경건의 생활이었습니다(유 1:15). 신자의 신자다운 생활모습은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은 점잖다든가 이상스러운 모양을 하여 형식적인 틀에 박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가정을 떠나 유곡심산에 들어가 기도만 하며 지낸 에녹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평범한 생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경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한 마디로 죄와 상관 없이 살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보다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죄 범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와 기도와 복음전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일에 본을 보여준 노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7절).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과거가 좋았다든가 현재가 제일 행복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한 영원한 장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나적인 현실주의나 저속한 감각주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뿐이고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활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가 불과 홍수로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일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습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는 일이 불신자들 보기에는 그지없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나와 나의 식구는 그 날에 살아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환난날을 미리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8절)

사람은 누구나 미지의 길을 걸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고집스럽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현명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을진대 순종만이 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의 풍성한 열매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의 고상한 품위는 예배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데서 시작하여 경건한 생활태도에서 그 향취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옛 선진들의 바른 신앙을 내 몸에 익혀서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노아와 같이 내 집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복받는 금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교회 부목사>

설립 20주년을 맞는

20대 총현의 청사진

위 영 환 장로

1. 설립 20주년을 맞는 의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어언 80여년을 헤아린다. 동양 교회의 이교사조에 얼룩진 이 강토에 은혜와 진리의 도가 선포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이 짧고도 긴 80여년의 역사는 형극의 길이요, 피와 눈물과 땀이 엉클어져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6·25로 남한의 산야를 남부여대하며 유랑하던 우리들이 수복된 서울에 돌아와 먼저 18명의 성도가 1953년 9월 6일 장충동의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본교회 설립의 효시가 되었다. 천막교회를 거쳐 폭격으로 폐허화된 요리집과 극장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은혜를 갈망하는 무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성령을 내리신 일은 잊을 수 없다. 그 당시의 감회는 아마 역사와 환경은 다르나 에스라, 느헤미야 당대의 그것과 방불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금년으로 우리는 교회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먼저 한국 기독교 80년사의 흐름속에 20년의 역사를 영위하는 동안 짧으나마 자랑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를 반성하여 오늘의 신앙을 검토하며 내일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자세를 재정비할 것과 끝으로 성년이 된 교회의 긍지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소명의식에 불타서 구령사업에 매진하여 결실하는 교회가 되는 데 큰 뜻이 있다.

2. 성년 총현이 지향할 길

성령님의 인도로 성년 총현이 되었다.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씩씩하고 활기찬 생명의 일들을 경영하여야겠다. 20주년을 뜻있게 맞고 또 나가야 할 길은 ① 인내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 ②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③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즉 10주년 사업으로 천국 일꾼을 키우는 일에 동참한 우리는 20주년 기념으로 저 유명한 무디성경학교를 소망하여 성경학교 설립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말씀 증거 운동이다. 이 나라에 이교가 성하여가고 내 백성은 참 삶의 길을 찾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그 군중 속에 편세있는 구원의 다이나마이트를 던져야 하겠고 또 세미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하겠다. 또 15주년 사업으로 전개한 선교사업이 점차 궤도에 올라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서만수 선교사는 이교도의 열쇠와 눈총을 받으며 밀림 속에서 이역의 풍토와 싸우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고 2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후보생 훈련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너 나 할것없이 남·녀전도회와 해외복음선교회원이 되어 증인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다.

세째 우리의 소원인 영동2지구에 세워질 성전은 시당국의 건설계획과 병행하여 양년 내에 착공될 것이며 온 성도가 단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부속 시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 20대 총현의 청사진은 제시되어 있다. 영감과 대망을 지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의 설계는 정확 세밀하고 총화를 집중한 실천과 담대한 기상으로 추진해야 하리라.

3. 총현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

성년 총현은 뜻있고 알차며 과감하여 성년다워야겠다. 우리는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감당하자. “삼겹술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는 말씀처럼 마음, 뜻, 행동을 단결하여 뭉치는 일에 힘쓰자.

둘째 진리를 파수하고 간직하고 화명하여 교회의 흥왕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하자.

세째 하나님을 아지 못해 멸망으로 멀어지는 동족에게 국내외의 모범적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아시아의 7교회는 현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 우리는 책망할 일이 없는 교회로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하고 환난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생기가 약동하는 성장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리하여 20주년을 의의있게 맞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는 30주년에는 더 크고 훌륭한 총성을 하나님께 올려 바칠 수 있도록 하자.

<교회설립20주년기념행사 준비위원장>

<노인심방 수행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정을 구성하여 주셨다. 이후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탄생하여 자라고 또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 가정은 삶의 기지가 되고 인류사회의 핵단위사회가 되었다.

십계명으로 집약된 기독교의 논리중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종교적 행동강령 다음으로 인간의 대인윤리(對人倫理)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도덕의 첫째가 가정의 질서유지와 바람직한 가정의 영위라고 생각한다.

가정적 질서가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건전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이기적 욕구의 독소는 서양문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회적 지도층의 사람들이 부모를 도외시키고 자기와 처자식들만을 가족으로 아는 기풍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 후계와 지혜는 냉대받고 멸시되어 연로한 부모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서글픈 여생을 덧없이 하송하는 일반적 경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연의 가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 요청을 이미 10년전에 절감하고 교회(古稀)를 삼으신 어른들을 연초마다 신년 세배를 겸하여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 뵙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필자는 당회장 목사님의 노인 심방을 수행하면서 외로운 인생의 황혼길에 병약(病弱)과 싸우며 숨가쁜 여생을 지나시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삶의 종착역을 알려드리며, 접점하는 숭고한 전도자의 전도 사역을 보았다.

앙상한 고목처럼 윤기 없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릎을 꿇대며 삶의 세 희망과 뜨거운 생명의 피를 전해주는 참 사랑의 목회를 보았다. “아버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으시고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고 가는 마지막 걸음을 걸읍시다”

하는 은근한 권고에 메말랐던 두 눈에서 옥같은 눈물이 샘솟는 흐뭇한 정경을 보았다.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근원을 일깨우시고 근원을 기억하는 참 인생의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아래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열기 있는 교훈을 자녀들의 귀에 알알이 심어줄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부모를 바로 모시어 효도를 다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모방을 통하여 형성된다 하였거니와 부모의 인격을 그 자녀가 따르게 마련이고 가정의 질서 속에서 삶의 기본을 배워 익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바른 질서가 잡힌 가정이라면 오늘은 얼마 품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 꼬마라도 장성하며 바른 질서로 몸에 익힐 것이며 이 아름다운 질서의 전승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내 나라는 새 역사를 한자 한자 엮어 나갈 것이니 진정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어!

이 노인심방을 시작한 계기를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35세의 외로운 몸으로 8세난 자기를 키워주실 때에 눈물과 기도로 믿음을 전승해 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복에 두고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충정을 금할 수 없어 몸부림치실 때에 나의 부모를 못 모시는 대신에 교회의 어른들을 찾아 뵙자는 강한 신앙 양심의 권고를 들으시고 실행에 옮기셨다고 하신다. 필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숙여 깊은 후회의 감정에 가슴이 쓰라렸다.

절없이 자행한 한없는 불효, 그리고 기억..... 이제는 정말 효도하겠읍니다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타계해 계신 어머니, 홀로 남은 아버지... 아!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송구하구나.

하나님이여 지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모님을 옳게 모실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노>

◇ 전도부의 계획 ◇

통합된 힘을 갖도록

유기적 연결

천 성 덕 목사

전도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요소들을 총동원하여 통합된 힘을 가지는 전도에 입할 수 있도록 전도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전도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전도는 이미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내 각 기관이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터이나 보다 효율적으로 전도에 교회의 힘을 경주할 수 있도록 각 지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교회의 전도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도활동을 전개하려고 기도하며 계획 중이다. 온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1. 국내전도

한국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노방전도, 축호전도, 방송전도(현재 기독교중앙방송과 서울중앙방송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군인전도(현재 육군과 공군에 실시하고 있다), 문서전도, 병원전도, 학생을 상대로 한 학원전도, 우리 교회의 교인을 중심으로 한 직장전도 등을 위하여 기도와 연구가 진행 중이다.

2. 해외선교

인도네시아에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여 해외선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실행하기 위하여 선교사후보생을 선발, 해외와 국내에서 양성하려고 한다.

3. 전도자 훈련과 양성

온 교인이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되 각 직업별로 유능한 전도인을 양성하여 특수 전도(회사, 상인, 교사, 군인, 의사, 간호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교회 전도부 담당>

◇ 성경학교 설립 그 의의 ◇

빛과 소금의 실천적

신앙인 훈련

홍 종 만 전도사

금년으로 우리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기념사업의 하나로 9월에 평신도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성경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여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이 오래 전부터 기도드리시던 바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게 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기관이나 인사들을 통하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

이 교육기관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각종 성경학교와 같이 취학길의 징검다리의 구실이나 한가한 노년층이나 부녀자들에게 교육의 길을 주거나 또는 전문적인 교역자 양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업전선에 있거나 앞으로 이러한 방면에 투신할 남녀청장년들을 훈련시켜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할 실천적 신앙인을 훈련시키교자 하는 데 본기관의 설립목적이 있다.

교과과정은 성경이 주가 될 것이며 수업시간은 주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저녁시간이 될 것이고 수업연한은 3년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강사는 특수한 교과를 위한 외래강사와 본교회 교역진에서 맡게 될 것이다.

이 기관은 우리 교계와 사회에 크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불원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 작성될 것이다.

<성경학교 설립 준비위 차장>

지도자 양성부 소식

자격있는 교사·부모·신앙인으로서, 자신 연마 등의 목표 아래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시작한 지 한달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주교10부를 도울 수 있는 교사들은 물론 훌륭한 부모와 평신도들을 교육시키고 머지 않아 3기생을 배출시키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4기생은 모집정원(50명)보다 초과되어 100여명의 인원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개론을 맡으신 총회 신학대학 학장이신 김희보 목사님의 강의는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고, 교수법, 교회사, 생활지도, 기독교교리, 아픔심리, 주교관리, 교회정치, 음악등의 교과과정들은 본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맡아 주시는데 이와같은 교육들은 꼭 배워야 할 것인데 수료자들에게는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지도자양성부 제공>

◇ 새신자부 소개 ◇

구도자반과 예비반 지도담당

편 집 실

초대교회 교회교육기관 가운데 「구도자반」이라는 것과 「예비반」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구도자반에서는 처음 예수믿기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예비반에서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 위하여 교회의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본 교회가 금년에 발족한 새신자부는 이 같은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교육의 체계화와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금 발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체계와 사업내역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대략 3가지 업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새신자를 발굴하는 일이고, 둘째는 발굴된 새신자를 훈련하는 일이고, 세째는 전교회 교세를 파악하는 통계업무이다.

새신자를 발굴하는 것은 전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교인들이 전도해 오는 새신자

를 인계받는 일과 다른 지방에서 전입된 기신자들을 안내하는 일들이다.

그리하여 발굴된 새신자를 두 분류로 나누어 초신자(처음 믿는 사람)는 8주간의 기본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어서 3개월간 기독교 기본교리에 관한 학습을 받게 한다. 그리고 기신자(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는 2주간 동안 총현교회 생활안내를 받게 된다. 이 모든 기본훈련이 끝난 성도들은 계속 자기 해당될 만한 교회 각 기관에 들어가 봉사하는 훈련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끝으로 통계업무는 교회의 출입을 지켜보는 일로 교인들의 출입을 원인별로 파악할 수 있고 통계 그 자체가 호적업무와 같아 교회 모든 살림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인구조사는 살림계획의 기초이기 때문이다(민 1:2).

(불) (기) (동)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서 예수님과 마

르다와 마리아——이 이야기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다. 언니 마르다는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공제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인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팔렸는지 질평 앉아서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모른다. (어찌면...?) 마르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동생에게 한 마디 편잔이라도 주지 않는 게 어쩐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일핏 보면,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것만 같고, 마르다야말로 아주 봉사적이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뜻밖에도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으시는가. 마르다적인 것과 마리아

적인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두 가지 면을 교훈하여 주는 것 같아 흥미를 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르다적인 성도가 많지 않을까? 무척 바쁜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만엔 그렇게 분주히 돌아가야만 주님께 헌신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하는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당장당장에 현저한 실적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단정해 버린다. 성급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일을 더 크게 산 것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가르쳐주려 한 것 같다. 그것은 마리아의 그 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앞섰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

<조>

◇ 사업 소개 ◇

◇ 미국에서 온 편지 ◇

여전도회가 맡은 군인전도

보수신앙 증거할 기회

1973년도를 맞아 여전도회에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복음 전파를 위해 종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방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지난 해에도 우리 총현의 여전도회원들은 땅과 물질을 바쳐 정성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해 왔던 것입니다. 금년에 맡겨진 군인전도 또한 성령의 권능과 그의 역사를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뿐입니다. 여전도회가 맡은 이러한 군인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전방 초소에 녹음설교를 방송하는 일인데 이 녹음설교를 위하여 먼저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순수한 복음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녹음설교를 육군의 김하진, 정관주 목사님과 공군의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하부대와 각 전방으로 방송하시는 일을 맡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이목사님께서도 주일 낮과 밤 그리고 수요일마다 예배와 녹음방송전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2. 군인교회를 건립하는 일인데 현재 계획중이나 아직은 미정입니다.

3. 군인들에게 합동으로 세례식을 행하는 일로서 일년에 2,3차 행할 예정인데 이 성례 때에는 우리 여전도회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대체로 집을 멀리 떠나온 군인들은 부모형제를 그리며 밤낮으로 면회 오는 것과 맛있는 음식, 반가운 소식 등을 기다리므로 우리가 한번씩 찾아가면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더욱 큰 전도의 성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머지않아 군의 임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주께 인도할 것이며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끝으로 군인전도를 위하여 주야도 수고하실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도우면서 73년도 군인전도의 많은 열매를 기다리며 이러한 계획과 내용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김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총현교회와 목사님 가정에 번영과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계시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 불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장년주일 학교에서 보수신앙에 대하여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의 개인적 신앙체험으로 간증하였을 때 많은 교인들의 지지응호를 받았고 크게 위로를 받았읍니다.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된 동기는 교회의 장로님 두분이 성경의 어떤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지방 부근에는 성실한 교인은 많아도 보수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총현교회와 같은 보수적인 교회를 한국에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며 또 제가 그곳에서 기초적 성경지식을 얻고 미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년주일학교에서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걸고 한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를 대신하여 대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곳 교인들에게 한국의 순수한 신앙을 소개할 기회가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미약한 제가 이런 귀한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써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총현교회의 여러 교우들에게 안부 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즐거운 성탄과 새해가 되기를 빕니다.

1972. 12. 12

김 지 모 올림

□□ 신앙상담란 마련 □□

6호 부터는 신앙상담란을 마련하여 신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하여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성경상의 의문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려고 하는데 대답에는 본 교회 목사님들이 담당하여 주실 것이다.

<교사 신앙부흥회 · 단기강습회를 마치고>

그 놀라운 열의와 노력 우리교회 자랑

이 준 교 집사

신년들어 우리 교회가 실시한 교사부흥회 겸 교사 단기강습회는 참으로 은혜스럽고 유익된 모임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번에 160여분의 현직 교사님들이 훈련을 받았고 모두가 다 열심으로 수강하여 총224명(지도자양성부 수료자 포함)이 주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오늘날 일반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교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번에 실시한 주교교사 훈련은 그야말로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기뻐던 일은 당초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현직교사 및 대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시 결과 현직교사가 아닌 분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 놀라운 열의와 노력은 우리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으리라.

이번에 실시한 교육 내용은 성경론, 교수법, 교육심리, 생활지도, 교회음악, 주교관리 그리고 특강 등이었는데 모두가 다 주교 교사로서의 필수과목들이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단지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점이다.

<지도자양성부 부감>

선한 청직이 사명 감당할 결심

박 행 렬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영원한 계약의 피로 말미암아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때를 따라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거듭 신령한 무장을 할 수 있게 하신 은혜와 땀새다 광야에서 5병2어를 주님 앞에 바친 어린아이의 헌신을 배우게 하신 은혜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깨닫고 행할 믿음을 주신 은혜와 실제적인 주교 운영 사항을 제확인함으로써 교사의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은혜와 부진했던 과거 교사생활을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청직이의 사명을 감당할 결심을 주신 은혜를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① 전 교인이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되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② 적어도 1년에 두번 정기 강습회와 한달에 한번 전 교인이 한자리에 강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③ 받지만 말고 출출 아는 신앙인이 되어 한시간 가르치기에 앞서 그 이상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 전 교회가 주일 오후시간들을 통하여 가졌으면 합니

다. 이렇게 하여 주일성수도 온전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하고 주님만이 흥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새신자부 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심

— 나는 다음 사실을 믿는다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가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주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모이라고 정해 주셨다.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다.

일반적으로 주일아침을

예배 시간으로 인정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어디서나,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나는 예배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겠다.

그리고

일생동안

하나님 말씀의 애독자가 되겠다.

● 구역권찰훈련을 실시하고 ●

통일된 업무요령과 방안 제시해 주어

백 성 룡 목사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1회 구역권찰훈련을 5일간 가진바 있다. 새로 임명받은 구역장 권찰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는 익혀야 할 일들이 있기에 이런 모임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심방과 보고가 간단한 일 같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해를 거듭할수록 절실히 느껴온바다. 교회가 마땅히 통일된 업무요령과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구역장과 권찰들이 맡은 일에 차질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과 훈련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며 이번 훈련의 동기 또한 여기에 있다.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권찰훈련에서는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차기부터는 행정담당의 구역장들과 심방을 담당하게 되는 권찰들과 각각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하다.

좀 염려되었던 일은 부흥집회와 훈련을 함께 하면 은혜받는 일과 훈련이 혼돈되어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잘 극복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이런 일에 어느 정도 숙달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제1회 구역권찰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면 앞으로의 여러가지 훈련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믿는다.

권찰훈련에는 대부분 제직들이 참여하므로 사실상 제직훈련의 일환으로 보아 이 점에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목사>

● 구역권찰훈련을 보고 ●

비상명령에 임한 십자군들 같아

정 문 호 목사

교회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능력받은 자들의 지사충성(至死忠誠)과 충성자들의 철저한 훈련과 일사각오(一死覺悟)의 봉사에 있다고 대답하고 싶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에 있고 일사각오의 봉사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에 있다. 이 순종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되어 크게 역사하려면 철저한 훈련에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

난을 받을지니(딤후 2:3)」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충성 일꾼들에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배놓을 수 없다. 훈련 없는 군인은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다.

이번 충현교회의 제1회 구역권찰훈련을 강사의 입장에서 보고 감명깊게 느낀 것은 마치 비상명령에 임하여 전투에 나가려는 군인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같았다. 총사령관 명령 일하에 움직이는 각 사단장들 모습과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쌓은 부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원 할것 없이 모두가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로 출전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군대들이 아닌가 착각될 정도였다. 태산이라도 넘을 수 있고 홍해라도 건널 수 있는 활기찬 모습들이었다.

과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마귀의 적진에 들격하는 승리의 발이 되시기 바라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랄뿐이다. 아멘. <본훈련집회 강사, 신봉산교회 목사>

● 구역권찰훈련을 받고 ●

우리교단에서 처음

실시된 훈련

손 동 운 집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로부터 있는 주교교사 훈련에 뒤이어 가진 구역권찰훈련이기에 좀 무리도 있었고 힘겨웠을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교단에서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특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해매는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구역 식구들을 찾아 보살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된 자들로서의 당연히 받아야 할 훈련이라는 데 더욱 그 의의가 컸다고 봅니다. 더우기 시작되는 시간이 거의되던 행여나 늦을세라 나이 많은 권사님, 권찰님들이 종종걸음으로 혹은 뛰어서 오시는 모습이며 회원 352명중 95% 이상이 출석하여 훈련에 열중하였다는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역장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을뿐 구역심방 한번 못해 보고 월말구역 보고도 못한 제가 이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쓰기에 앞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끝내고 사명이 주어진 우리들에게는 모세혈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비록 냄새나고 더러워진 발이지만 아름다운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발의 소유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마장동구역 구역장>

□ 설립 20주년을 맞는

성년 충현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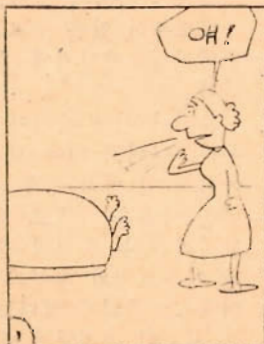
오 승 를 장로

성경연구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의 부흥발전은 무엇보다도 성경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주일학교 교육에 있다고 본다. 동서를 통해 어떠한 교회를 보아도 유년시절의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성경말씀의 뿌리를 박아주는 교회는 부흥 발전하기 마련이다.

설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야 성경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늦은 감도 없지않아 있으나 참으로 복된 일로 전 교우가 이 일에 합심하여 협력하여야 될 줄로 생각한다. 5년전 어떤 사람이 충현교회 발전을 위하여는 교회에 부속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때가 있다. 최근 이단사설이 급격히 만연하여 자칫하

면 이에 유혹되기 쉬운 시대이다. 성경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 위험성이 농후하다 보겠다. 그분들은 교활한 수단으로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하여 침투하고 있다. 사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열심은 어느 면에서는 대단하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 묵상하라, 기도하라고 항상 부르짖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이 아주 고질화되고 있는 것 같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등 이단자들을 설득시킬만한 실력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소유하여야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기도와 아울러 성경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부 부장>



야마니시 교회를 돌아보고

김 창 배 장로

지난 해 8월 15일부터 약 한달가량 일본에 가 있을 때에 전에 우리교회를 시찰차 다녀가신 일본 경도시 야마니시 교회에 시무하시는 고바야시 목사님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주일예배와 특별집회에 참석하였을 때의 일이다. 예배의 설교가 끝나자 나에 대하여 정중한 인사소개가 있은 후 모처럼 이곳에 와시의 본대로 느꼈대로의 감상과 아울러 신령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모범적인 충현교회의 좋은 이야기를 온 교우들에게 귀중한 참고가 되도록 소개해 달라는 갑작스런 요청에 증거한 한 토막 이야기이다.

같은 믿음의 형제가 모인 교회라고는 하지만 언어와 민족이 다른 이국이라는 선입관에 무척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주여, 저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시사 실수하지 않고 은혜롭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조용히 기도한 후 상례적인 인사를 간단히 말하고 그곳 교회당에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교인들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와 질서며 분위기가 아주 산만하여 전혀 경건성이 없어 어쩐지 거슬리는 점이 없지 않았던 참이었다.

그래 서슴지 않고 교회란 지존하신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진대는 우리는 무엇하러 교회에 나오며 그 목적과 의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찌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교훈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는 바로는 예배 질서에 참된 경건성을 볼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까닭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로 나올 수가 없을 터인즉 이 점을 각자는 자성하는 입장에서 심각히 생각할 문제이며 또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일침을 가하였다.

다음, 외람되지만 본교회 고바야시 목사님도 지난 날 우리 충현교회에 오셨을 때 수일을 묵으시며 친히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간

증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충현교회가 창립 19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4,000여 성도가 운집하는 교회로 질적 양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게 된 그 원인은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경건되고 참된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결심과 헌신으로 또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간증하였다.

그리고 나서 부디 여러분들도 참되고 진실된 성도로서 각자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토대 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안일과 해이에서 각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땅위에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허다한 우상신당과 사찰 등을 하루속히 타파하고(경도 시내만 1,850여개의 신당이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때에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어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성경이 똑똑히 교훈해 주심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이나 나는 비록 민족과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해 주신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의 사랑을 힘입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부디 이 교회와 여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을 맺자 온 회중이 일제히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심에 더욱 감격했다.

그 후에는 당회와 제직회 모임에 우리 나라의 현황과 우리 충현교회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대화로서 소개와 간증을 하였는데 많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미련하고 부족한 이 죄인이 무엇인데 이토록...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웠으며 모름지기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충현의 성도된 자부와 긍지를 지니고 담대히 사명에 충성하는 십자가의 역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바이다.

<대학부 부장>

□ 우리구역 소개 □

답십리 구역

김 은 호 집사

먼저 충현에 속한 59개 구역의 모든 식구들 위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역 소개」라는 제목의 원고를 부탁받고 저는 얼마나 당황하여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변두리에 속해 있는 구역으로 너무나도 빈약한 구역이고 보니 무슨 미담이나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구역의 빈약성만 열거하게 되었으니 공개적인 망신이며 부끄럽고 죄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현황은 등록 세대수가 18세대 그 중 세례교인이 19명, 학습교인 3명, 유아세례자 3명, 원입교인 6명, 입교인 2명, 합계 33명으로 그것도 18세대 중 가족 전체가 본교회에 나오는 가정은 불과 세 네 가정에 지나지 않고 대개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정도 나오게 되는 형편이고 보니 그만하면 더 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구역의 빈약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여깁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 구역처럼 성도의 교제나 친교도 없는 구역이 또 없을 것 같아 구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부족과 무능을 통감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울 뿐입니다.

72년도에 본구역의 구역 책임자로 처음 임명을 받고 나서 구역의 현황과 사정을 파악하여 보니 구역의 침체성이 구역에배를 드리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당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권찰님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헛수고에 그쳤으니 그 이유는 첫째 예배에 참석할 인원확보가 문제였고 둘째 광범위한 구역의 지리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금요집회는 예배와 피차간에 사랑

어린 대화를 통하여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물론 개인의 사정을 알게 되며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며 나아가서는 성도들간에 교제와 친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 금요집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역이 금요집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곧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구역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금요집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불행스럽고 신앙상 손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현재 이신주 권사님을 위시하여 정춘수 집사님과 윤여전 집사님 이 세분 권찰님의 사명감에 불타는 봉사적인 활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변두리 지역의 지형적 악조건으로 때때로 오르고 내려야하는 언덕 언덕마다 뿌려진 이마의 땀방울의 수고야말로 갈보리 산상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수가 아니었을 까요?

때로는 강아지만 짖어대는 냉대와 박대를 받아가며 또 때로는 까닭 없는 원망과 불평을 들어 가면서도 그 길은 오직 주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을 모르는 희생적인 봉사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히 13:1-2). 하물며 주님의 사명을 띄고 복을 빌어주시기 위하여 심부름을 오시는 권찰의 심방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며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 오신 주님을 박대하던(눅 2:7)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과 같은 무지한 인간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 오시는 권찰의 심방을 육안으로 보지는 모양 없는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높은 차원에서 영의 눈을 뜨고 겸손히 기쁨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축복이 있으며 화평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한 사업에 애쓰며 힘쓰시는 권찰님들 위에 진정 경의를 드리며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늘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장〉

□ 편집인 컬럼 □

아름다운 그물

주님은 교회를 천국이라 하시고, 이 천국을 또한 그물로써 비유하셨다. 그물은 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고스란히 잉태한 가능성인 것이다.

만약 그물에 구멍이 있어, 들어온 고기를 놓쳐 버린다면, 네마주이의 네마바구니를 채우는데 일조(一助)의 가치를 겨우 발휘할 수 있는 한조박의 절레쪽은 될는지 몰라도, 그것은 이미 그물일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도 면밀한 계획, 기구 그리고 장비를 갖추고, 어로(漁撈)의 기술을 익혀 만전의 대책을 구비하고 운용되어야만 한다.

인류의 위기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오늘날, 교회의 유해 무가치설까지 사람들의 입방아질 감으로 심심잡게 오르내리고 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는 법이요, 외기(外氣)가 차가울수록 열은 더한층 그리운 법이런만, 칠혹같이 어둡고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酷寒) 계절— 이 땅에 빛의, 그리고 따사로

움의 고장은 정녕 어디란 말인가.

여기 총현의 역군 있어 어둠을 해매며, 한줄기 빛을 찾아 애타게 허덕이는 가련한 인어(人魚)들, 그리고 생명들을 천래의 그물을 띄고 모아 들이고 안아 올려서 찾아온 그들을 구주의 구원선에 옮겨 주고자 닻을 올린다. 새로이 키를 잡았다.

이제 총현은 73년 새날들을 맞아 더한층 든든한 천국그물을 대한의 바다로 힘차게 내던진다. 이 신비로운 그물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조화된 조직의 총화요, 이 믿음직한 그물은 노도 광풍을 해치고 넘어나온 연약한 생명들의 기진맥진한 지느러미를 부드럽고 포근하게, 그리고 엄마의 품안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안아주는 행복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그물들은 때와 장소를 따라서 주관자의 명에 의해 내릴 때와 올릴 때, 펄 곳과 거둠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한 없는 맘을 쏟고, 값비싼 삶을, 절고 또 뿌려, 쌓이고 쌓인 고통보다 더 많은 생명을 담아 안고, 환희의 찬미 부르며, 그 날, 피안의 포구(浦口)에 닻을 내릴 때,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신묘(神妙)한 미소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금침(衾枕)마냥 감싸리라.

: : : 사 랑 의 길 : : :

기 자 석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싸주는 사랑과 채찍질하는 사랑으로... 후자의 사랑은 훌륭한 인간으로 형성시키려는 방법으로 매와 훈시가 따른다. 매를 대는 것은 그의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요 도리어 사랑하는 까닭이며 좀 더 나은 인격체를 바라봄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괴로운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 한 돈 많은 부자가 있어 자식을 귀여워하여 무엇이든 자식이 원하는 바를 받들어 주고 인생의 모험같은 것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간섭하여 키웠다고 하자. 물론 그의 부모는 그의 자식을 가장 훌륭하게 키웠다고 자부

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의 자식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병신이 되었다.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어느것 하나 극복할 수 없는 신세로 남에게 의지만 하려는 「정신적 척추장애자」가 되고 말았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그것은 성장과정에 진정한 사랑의 체험을 하여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성공자로 살기 위하여도 훈련이 필요한데 하물며 믿음의 성공자로 키워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전혀 없이 하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로움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도 「영적 척추장애자」가 아닌 「영적 승리자」로 키워주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이리라.

<육>

* 교회 뉴우스 *

□ 신년 축하예배

우리들의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973년이라는 새해를 또 허락하여 주셨다. 새해 아침을 맞는 1월 1일 오전 11시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축하예배를 드리었다. 「참 잘 살고자하면」(막 8:27-28)이라는 제목의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다.

□ 교사 부흥회 및 단기 강습회

「내 양을 먹이라」(요 21:17)는 주제로 제2회 교사 부흥회 및 제1회 교사 단기강습회가 1월 2일부터 5일까지 성도교회 김성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베풀어 졌다. 이번 단기강습회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평균 389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일깨움과 아울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사 실무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개괄적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월 14일 저녁예배 후에는 교육을 마친 교사들에게 교사 자격증 수여식이 있었다. 교장 김창인 목사님으로부터 이 날 자격증을 수여 받은 교사는 명예교사 13명, 정규교사 101명(교사학고 및 지도자양성부 수료자), 단기교사 110명으로 모두 224명에 달하였다.

□ 처음 열린 구역 권찰 훈련

항상 교우들의 형편을 살피며 성도간에 형제적인 유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구역 권찰들에 대한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1월 8일부

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큰 교회이기에 더우기 그 필요성이 절실하며 시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번 훈련은 「아름다운 발이 되자」(롬 10:15)는 주제 하에 신용산교회 정문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와 훈련의 두 가지가 병행 실시되었다. 교우친교, 이단비판, 구역행정, 권찰임무 등의 과목이 훈련내용이었고 훈련 후에 새로운 심방일지와 기타 개선된 보고서식들이 전달되어 앞으로 이를 활용함으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교우들의 형편이 파악되어 교회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쓰러지는 순간까지 충성 다하여

—고 이삼은 전도사님—

한국과 충청교회의 최초 음악목사라는 꿈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본교회의 이삼은 전도사님이 지난 1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장막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전도사님은 1927년 1월 11일 평북 정주군 고덕면 일신동에서 태어나 오산중학교를 거쳐 1949년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제1회로 졸업하시고 10년간 모교인 오산중고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1968년 1월 1일부터 충청교회 음악전도사로 시무하시면서 음악목사의 꿈을 익혀오셨다. 이 꿈이 결실되려는 일보전에 47세의 아까운 나이에 먼저 가시고 말았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3녀와 노모님이 계신다.

1월 25일 충청교회 교회장으로 김창인 목사님의 집례하에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고인이 담뭍혀 봉사하던 여성성가대 눈물어린 찬송 속에 장지인 경기도의 충현동산으로

향하였다.

쓰러지기 몇시간 전까지 주님께 서 부탁하신 책임에 충성을 다바치시다가 주님의 뜻대로 전도사님은 먼저 가셨다. 그러나 그의 높은 신앙인격과 강한 충성심은 두고 두고 후손들의 본이 될 것이다.

□ 남전도회에서도 성가대 발족

오래 전부터 여성성가대가 발족되어 충현 제단에 영광 찬송을 올리어 왔는데 이와 양면을 이룰 또 하나의 성가대를 주님이 허락하셨다. 지난 1월 8일 남전도회는 남전도회 내에 남성성가대를 두기로 하고 총회후 이를 발족시키었다. 45명으로 구성된 이 성가대는 다수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성가대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더욱 이채를 띄우고 있다.

대장에는 최석주 장로, 고문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고 이삼은 전도사님이 추대되었었다. 지휘는 현재 초동부 성가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이효은 집사가, 반주는 정인숙 선생이 담당하여 매월 월례회 후에 연습하여 말씀과 더불어 신령한 노래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리라고 한다.

□ 도시락을 통한 성도의 교제

청년부는 오래 전부터 주일에는 도시락을 싸오도록 회원들에게 권장하여 이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부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실에 모여 정답게 마주 앉아 각자가 싸온 도시락을 들며 면회회 사업으로부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일까지 간격 없는 광범위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다. 신임회원들을 재빨리 적응시키는 데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기독교와 유사종교

청년부는 지난 1월 14일 오후 정 기적으로 있는 발채토의를 열었다. 지육부가 주관하여 있는 1월의 토의 제목은 「기독교와 유사종교」라는 제목으로써 날로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단과 유사종교를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자 함에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 기독교와 나

대학부는 제2회 동기 수양회를 한일산 기도원에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가질 예정이다. 「그리스도와 나」라는 주제로 청년부 지도이신 정상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었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야외에서의 모임이라는 것과 대학생다운 토론 및 그룹토의 등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개인의 신앙을 깊고도 높게 이끌어 대학부 발전과 교회 부흥에 크게 힘을 줄 것을 다짐하리라 한다.

□ 동기 수양회에서 「충현」 빛나

S.F.C. 동기 수양회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1973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서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최 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는 이 모임에 대학부와 고등부 회원 다수가 참석하여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기량을 겨루는 가운데 성경퀴즈대회에 종합 1등을 차지하며 암송, 성가 등에 입상하여 좋은 성적으로 충현을 빛내었다고 한다.

□ 입시생 위한 기도회

지난 1월 14일 2부에배 후에 대학부실에서는 특별한 기도회가 있었다. 충현교회 교인들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시

* 교회 뉴스

험을 앞둔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한 자리에 모여 입시를 위한 정성어린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또한 1월 21일에는 고등부 예배실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생을 위하여서도 특별 기도회가 있었다.

□ 중등부 전도대 발족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이를 것을 지난 1월 21일 서약한 70여명의 중등부 회원들은 새해에는 보다 힘있는 전도의 역군이 되고자 일어섰다. 앞으로 중등부의 부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지는 이들에게 기대가 크다 하겠다.

□ 겨울어린이성경학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4:4)는 주제로 열번째의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가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교되었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단기 집중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실시된 이번 겨울학교는 교육1부(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새신자부, 특별반)와 110명의 교사들과 700여명의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더욱 든든하게 무장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후암제일교회의 박희천 목사님이 담당하신 저녁 부흥집회는 큰 은혜의 감화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지도자 양성부 제4기 개강

주님의 축복으로 회수를 더할 수록 결과 양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 지도자 양성부의 제4기생들의 개강식이 지난 2월 5일 오후 7시에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특히 제4기의 수강 신청자수는 정원의 배가

넘는 일백여명 이상이 되어서 담당자들은 한층 책임이 무겁고 즐거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수강할 이들은 신구약개론, 기독교교리, 교회사, 교회생활, 교회정치, 교육학, 가정교육, 주교지도, 교육심리, 교회음악, 특강과 좌담회등의 과목을 교육받고,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는 부모로 실력있는 교사로 성장인으로 크게 활약할 것이 기대되며 양적으로 급증한 이들을 계획된 바대로 교육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장소와 설비 등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 유·초등부에서 연초 일제심방 시작

새 학기를 맞은 초등부는 2월 한 달을 심방의 달로 정하고 첫주부터 일제심방에 들어갔다. 연례적인 행사에 머무는 듯하였던 과거의 방법을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설문식의 상세한 조사표를 만들어 담임교사들로 하여금 작성 보고하게 한 점은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금번 심방을 통하여는 교사와 학생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학생의 가정상태, 지역분포상태, 통학거리 관계, 가정에서의 종교생활등을 파악하여 학년 단위의 운영지침 자료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다.

※ 알림 5호의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준비위원장 조현명 장로님 후임으로 신년 당회임원 개선환 위영환 장로님으로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사 설>

편 집 지 침

우리가 가질 양심

- (1)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삶의 목표로 하는 충현 교인 육성을 돕는다.
- (2) 당회의 목회 원칙을 준수하고, 당회장의 목회 연장의 도구로써 사명을 담당한다.
- (3) 필진의 독점을 배제하고, 가급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의사표현을 하게 한다.
- (4)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말하게 한다.
- (5) 적극,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교회의 대변지가 되도록 한다.
- (6) 유익을 주는 교회의 공기가 되도록 한다.
- (7) 그늘에 묻힌 신행을 찾아, 일반 교인의 신앙생활에 산 교훈으로 삼는다.

□ 원 고 모 집 □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충현」지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종류: 신앙간증, 수필, 시,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매수: 200자 원고지 5매나 10매정도

기간: 수시

제출할 곳: 「충현」투고함이나 교육1부 사무실

※ 주의: 한글로 쓰시되 외국어를 필요로 할 때는 괄호 안에 써 넣으십시오.

양심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구가 내면화된 양심으로 물건을 훔치는 따위의 행위는 옳지 않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 시킴으로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라도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기적인 욕심이 내면화된 양심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하고 또 그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치 않고 타인의 이목은 묵살하며 자아의 이기적 욕구대로 살아가는 양심을 말한다. 이런 양심의 소유자는 연전에 사회면을 어지러이 장식하였던 히피살인광들처럼 단지 일시적 욕구충족을 위해 히죽이 웃으며 인간의 생명을 앗고는 돼지새끼 한마리 잡았다고 축제 기분을 낸 것과 같은 실로 가공할 양심인 것이며 대중소비사회인 이 시대의 대표적인 양심인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요구가 내면화된 양심이다. 이는 참 기독교자의 양심으로 예수 안에서 산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경지의 주님과 혼연일체가 된 양심이다. 이 양심은 자아와 환경을 죽이고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양심으로 이러한 양심의 소유자는 불신가족을 두고는 견딜 수 없어 눈물로 기도하며 피흘려 전도하려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힌다.

오늘날은 이기적 욕구대로 사는게 최고라는 양심이 중흥으로 휩쓰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참 신앙양심으로 영적 전쟁을 감행하여 승리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 충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편집하고 나서

◇: 본교회가 금년으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년충현」이란 말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전도부와 새신자부를 당회 직속으로 두는 등 기구개편과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보았으며 연초부터 새로운 일들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 그중에 교사 신앙부흥·단기강습회가 예상 외의 수확이라고 들리는가 하면, 구역연합 훈련 집회에 대하여도 그 성과가 높고 평가되고 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시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교우들의 결의가 엿보인다.

◇: 청탁된 원고가 제대로 또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원래의 계획대로 그리고 제날짜에 나가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일도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충현」지를 통하여 충현식구들간에 더 가까워지고 교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충현」지를 위해 일하는 이들

편집위원: 윤종순(대표)

간사: 최석주(대표)

취재기자: 홍이만(대표)

한한황오정조노홍이최윤종순

근성명응은선의종동석주장로

육실길기표근일만규주장로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

선선선선선선집사전도사